

양봉산업 발전 방안 모색

농진청, 오늘부터 이틀간 국제 학술토론회 미국·오스트리아 등 7개 국가 전문가들 참여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국양봉학회, 안동대학교와 공동으로 24, 25일 양일간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엄'을 비대면으로 연다.

한국양봉학회 제37차 동계학술발표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지난해 시행된 '양봉산업법' 제정을 기념해 양봉 선진국의 관련 법안과 정책 등을 알아보고, 우리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됐다.

법과 산업, 한국 양봉 발전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7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나

리의 양봉 관련 법안과 정책, 산업, 연구 현황 등을 소개한다.

첫날인 24일에는 ▲중국 양봉 관련 규정 및 산업현황(중국) ▲일본 양봉 관련 법규와 산업지원(일본) ▲국가 밀원가치 향상 연구개발 방향(한국) ▲양봉산업법 시행에 따른 산업육성 방향(한국)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25일에는 ▲뉴질랜드 양봉산업 및 해외수출 전략(뉴질랜드) ▲미국 양봉 관련 법규와 산업 지원(미국) ▲유럽 양봉관련 규정과 이탈리아 양봉산업(이탈리아) ▲봉군 붕괴현상 모니터링 및 유럽 양봉연구현황(오스트리아) ▲국내 발생 꿀벌 질병 발생 및 방제 연구(한국)를 주제로 발표한다.

양봉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학술토론회를 마치고,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책,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홍수명 부장은 "기후변화와 발효 수입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 선진국과의 정보 교류,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며 "양봉산업 역사가 깊은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해 우리나라 양봉 관련 규정과 정책은 아직 시작단계라 개선할 점이 많고, 양봉농가 소득 향상과 산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봉산업법'은 농업 생태계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관리해 양봉산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해 8월 18일 시행됐다.

/김윤상 기자

에디슨모터스와 함께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군산형일지리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전북 군산형 전기차 클러스터의 구축을 주도할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군산시에서는 (주)명신, 에디슨모터스(주), (주)대창모터스, (주)엔피에스코리아, (주)코스텍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차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미래차 인력양성 및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했다.

고용·산업위기의 극복과 지역경제 체질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군산 일자리창출 지원 일환
전북인력개발원서 2개 과정
내달 16일부터 교육 실시

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3월 15일 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셔틀 버스를 운영 할 예정이며, 개인별 훈련수당도 지급 된다.

관내 전기차 기업의 유치로 미래 자동차 제조기술 전문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계 인력 mismatch 해소와 지역 청년인재의 도외 유출 방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472-2500)로 문의하면 되며, 접수는 전북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올해도 금융사고 없는 신탁 조합 되도록 노력해달라'

2020년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 시상식

신탁중앙회전북지부(본부장 김영하)는 지난 22일 신탁중앙회전북지부 3층 대강당에서 '2020년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 및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은 6개 군으로 나누어 1시간 단위로 시간대를 나누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2020년도 신탁중앙회전북지부 종합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을 비롯한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 현판수여식 및 우수 실적을 거둔 모범 신탁 임직원 24명에 대한 신탁중앙회장 표창을 시상하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한편, 전북지역 71개 신탁은 2020년 말 기준 자산 6조8,000억, 조합원 수 47만명을 돌파했다.

신탁중앙회전북지부 김영하 본부장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지만 1년간 고생한 전북신탁에 시상식을 개최해 축하해드리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전북지부에서 간소하게 개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중앙회전북지부는 지난 22일 신탁중앙회전북지부 3층 대강당에서 '2020년 종합경영평가 우수조합 및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1년 한 해에도 '일등신탁 으뜸 전북'을 만들기 위해 대출증대, 수익기반 확대, ROA 0.5%이상 증대 및 금융사고 없는 전북신탁이 될 수 있도록 전북신탁 임·직원이 노력·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 우리신협(이사장 김한주) ▲최우수상 전주삼천신협(이사장 최태일), 전주북지신협(이사장 임승기), 전주중산신협(이사장 유학봉), 예수병원신협(이사장 홍용선) ▲우수상 호성신협(이사장 정진경), 전주중앙신협(이사장 한정희), 소양신협(이사장 이로), 고

창신협(이사장 고석원), 정읍에신협(이사장 김신), 원광신협(이사장 정영권), 대산신협(이사장 천봉은), 함열신협(이사장 박종석), 전주동부신협(이사장 인옥순),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양춘제), 군산상진신협(이사장 김동식), 군산월명신협(이사장 박운근), 이리주협신협(이사장 양승용), 김제신협(이사장 조재덕), 전주가나안신협(이사장 오현철), 진안군청신협(이사장 양철성) ▲특별상 전주대건신협(이사장 박병타), 순창신협(이사장 정준원) 등이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고로쇠수액 채취지 점검... 내달 중순까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리산, 덕유산 지역을 포함한 관내 고로쇠수액 채취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오는 3월 중순까지 한달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지의 불법·무단채취 및 집수통, 호스 등 생산·보관시설의 관리상태 등이며, 특히 위생과 직결되어 있는 채취용 호스를 집중 점검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 서부청에서는 관내 74개 마을에 약70만 l의 고로쇠수액을 무상양여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46곳 적발

전북농원원 "농산물가공품이 가장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24일간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800여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 위반한 46개 업소(가짓표시 19, 미표시 27)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품목은 떡·빵·반찬류 등 농산물 가공품이 30건(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10건(21.7%), 축산물 6건(13.0%)순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전북농원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소는 수사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전기안전 콘텐츠 작품' 공모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원)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까지 2021년도 전기안전 콘텐츠 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초등 부문), 광고, 사진, TV스토리보드(이상 일반) 등 모두 4개 분야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생활 속 전기안전을 주제로 한 작품이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응모 마감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공사가 개설한 공모전 홈페이지(www.ksco.or.kr)를 통해서만 접수 받는다. 접수된 작품들은 1차 내부 심사과 2차 외부 전문위원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수상작이 가려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정책학회는 23일 중소기업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피해 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중기중앙회·중기벤처정책학회 '소상공인 포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정책학회(회장 한정화)는 23일 중소기업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피해 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장기화에 걸쳐 증가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정화 중소기업정책학회 회장, 박수근 중소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 위원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다뤘다. 이 교수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가장 크다고 강조하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소상공인의 피해는 정부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며, 전체 고용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이 40%인 만큼 이들이 무너지면 심각한 고용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했다. 또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에 대한 포괄적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중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뤘다. 임 교수는 우선, 재난지원금의 문제점으로 ▲확실적 지원 ▲소의 업종 발생 ▲지원 금액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으며, 대출지원의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원리금 상환 부담 ▲부족한 대출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출 진행

후 피해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금액에서 피해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 지급될 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면 소상공인은 손실금액 추정 후 부담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대출액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임 교수는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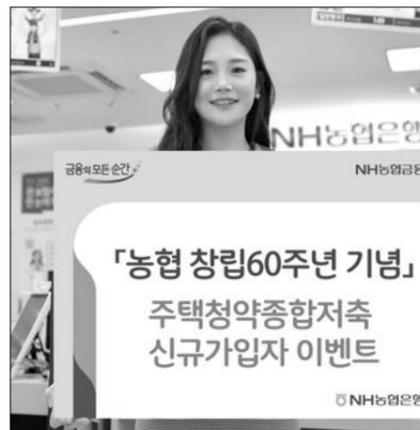
이후 송창식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노동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요가 사업자연맹 대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지역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 전환이나 휴업, 폐업을 고려하는 비중이 코로나 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졌다"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과 지원책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새로운 출발, 희망찬 새학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농협 창립 60주년 맞아 4월까지 신규가입자 대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과 함께 농협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자동 응모되며, 이벤트, 2 각

611명씩 추첨해 LG 노트북, 갤럭시시리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3 '힘내요 대한민국! 힘내요 우리!'는 이벤트 기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며, 799명씩 추첨해 포대오래 치킨 교환권을 제공한다. 모든 이벤트 간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와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